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하세요" 스타벅스코리아가 4일 오전 서울 스타벅스 프레젠테이션점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신상품 6종을 선보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케이크를 17일 까지 예약 주문을 통해 판매를 한다. /손진영 기자 son@

내년 2학기 경기 전체 고교 '무상급식'

경기도의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
내년도 2학기부터 경기도 내 전체 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4일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학기부터 도내 전체 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안양5) 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내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예산안을 의결하며 '고교 무상급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기 사

제기동·천호동 등 도시재생 후보지 선정

서울시, 주거지원 7곳 등 총 15곳
서울시는 2018년도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15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주민역량 강화를 돕는 준비 사업이다. 시는 선정된 지역에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도시재생 의제 발굴 등 주민 스스로 노후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지역당 최대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급번 선정된 지역은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2곳, 주거지원 사업 7곳, 일반 근린형 사업 6곳 등 총 15곳이다. 우리동네살리기 희망지에는 동대문구 제기동, 관악구 은천동이 선정됐다.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역은 강북구 번2동 148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2동, 서대문구 홍제1동, 양천구 신월3동, 구로구 개봉1동, 영등포구 신길5동, 강동구 천호3동 등이다. 일반 근린형 사업지로는 중구 다산동, 성동구 사근동, 도봉구 쌍문1동, 은평구 응암3동, 구로구 구로 2·4동, 중랑구 중화2동 등이 선정됐다. 예비후보지는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망우본동, 양천구 목3동이다. /김현정 기자

가락시장 현대화... 내년 채소2동 설계

농수산식품공, 재검토 끝내고 착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에 1공구 채소2동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채소2동의 건물 연면적은 5만7067㎡이다. 이곳에서는 배추, 무, 양배추 등 김장 양념류 11개 품목이 거래될 예정이다. 이전 대상 중도매인은 총 356명이다. 공사는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위생적인 거래, 효율적인 물류를 위해 온도관리 가능한 정온 설비와 차량이 건물내부로 출입하지 않는 전면하차거재를 전제로 설계했다. 공사는 지난 6월 채소2동 중간설계 후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당초 승인된 공사비 786억원보다 393억원 증가한 1179억원으로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했다. /김현정 기자



가락시장 전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분쟁 88% 서울·경기·인천서 발생 가맹-대리점 문제 머리 맞댄다

공정거래 지방화 합동토론회

가맹브랜드 70% 3개 지자체 위치
내년 바뀌는 지자체의 역할 모색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 건수의 88%가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방향과 가맹희망자에게 제



공되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시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업무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토론회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비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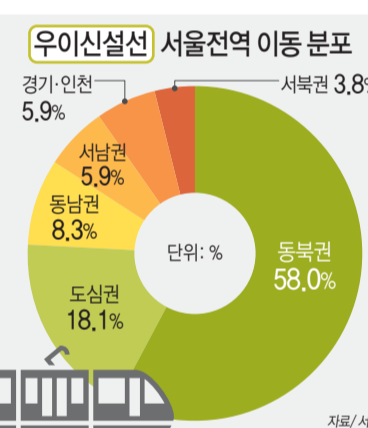
여한다.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로 모두 연설한다. 이후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3개 지자체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 표준화 작업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제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우이신설선 개통... 출퇴근 30분 줄었다

서울시,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동북권 출·퇴근 각각 4.6분·5.2분 ↓
수유·길음역 등 7개역 혼잡도 개선

지난해 우이신설선 개통 이후 신설동~우이동 구간 출퇴근 시간이 약 3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4일 우이신설선 개통에 따른 교통편의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통카드 빅데이터 1242만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우이동에서 신설동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시내버스와 비교해 출근 길은 최대 33분, 퇴근길은 최대 27분 더 빨랐다. 개통 전후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줄어든 동선은 동북권(강북, 성북, 동대문 등) 내에서의 이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이신설선 이용 패턴 중 58%를 차지하는 동북권 내 이동은 출근 시



4.6분, 퇴근 시 5.2분이 단축됐다. 동대문구를 오가는 승객은 출근 9분, 퇴근 11분, 강북구는 출근 5분, 퇴근 10분, 성북구는 출근 7분, 퇴근 4분가량을 절약했다. 환승 횟수 감소 효과는 동북권 밖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승객에서 두드러졌다. 출근 시에는 서북권이 0.74회, 퇴근 시에는 동남권 0.94회로 가장 많이 줄었다.

기존 지하철 역사와 버스 이용수요를 분산시켜 혼잡도를 개선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통 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됐던 수유역, 길음역 등 인근 7개 역사의 승객 수는 최대 14% 감소했다. 우이신설선과 동일구간을 운행하는 1014번, 1166번 시내버스는 차내 혼잡도가 줄고, 통행시간도 최대 6분 단축됐다.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역 주변 이용객이 일평균 8만2000명 증가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었다. 북한산우이역 일대는 이용객이 약 1.6배 증가했고, 주말 이용객은 평일보다 약 1.4배 늘어났다.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통해 우이신설선 개통 후 동북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증대된 것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분석 결과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노니'제품서 쇠가루 검출 서울시, 9개종 기준치 초과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열대 식물 '노니' 제품에서 3개 중 1개꼴로 기준치 이상의 쇠가루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노니 제품 27종의 안전성 조사 결과 9개 분말·환제품에서 쇠가루가 기준치보다 6~56배 초과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10월 23~31일 온라인 판매제품 12개,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개 등 총 27개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7개 중 9개 제품이 쇠가루 기준치(10mg/kg 미만)를 초과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수거제품 중 수입 완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이 없었으며, 부적합 모두 국내 제조·판매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정 기자

서구·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추가 지정

인천시교육청, 5년간 운영키로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교육혁신지구를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에 이어 서구, 연수구 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교육혁신지구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통해 풀어내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은 2015년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2017년에 계양구, 부평구, 중구로 확대됐으며, 2019년에는 서구, 연수구까지 추가 지정돼 내년에는 6개의 교육혁신지구가 운영된다. 이번 지정된 서구와 연수구는 마을교육자원 발굴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마을학교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감성문화예술교육 운영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9년 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 확대에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공동체가 조성돼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는데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밝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o@